

반도체, 장기호황 마감 “장기침체”

2008년 매출액 2486억달러로 2.8% 감소 ... 12월에는 무려 22% 급감

2008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컴퓨터나 휴대폰 등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세계 반도체 판매가 2.8% 줄어들어 2001년 이후 7년 만에 첫 감소세를 기록했다.

블룸버그 통신은 반도체산업협회(SIA)를 인용해 2008년 세계 반도체 판매액이 2486억달러로 2007년 2556억달러보다 2.8% 감소했다고 1월2일 보도했다.

특히, 12월에는 174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2% 급감하면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.

12월 반도체 판매액의 전월대비 감소율은 16.6%였으며, 11월에는 10%를 나타냈다.

SIA의 조지 스켈리스 회장은 “전례를 살펴보면 4/4분기에는 반도체 시장이 양호한 실적을 보이지만, 2008년 4/4분기에는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확산되면서 반도체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”며 “반도체 생산기업들이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시기에 직면했다”고 언급했다.

2008년 12월에 가트너는 2009년 반도체 매출이 16%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며, SIA는 5.6% 감소를 전망한 바 있다.

유럽 최대의 반도체 생산기업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미국 2위 기업인 텍사스인스트루먼트(TI)는 경기침체로 수요가 감소하자 1월 말 대규모 감원계획을 발표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2/03>